

# 일본의 수목의사회 조직과 활동

한국수목보호연구회

## 1. 조직과 임무

수목의사회의 회원은 재단법인 일본녹화센타에서 시행하는 수목의사자격을 취득한 수목의사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수목의사제도가 시행된 다음해인 1992년 6월에 창립되었다.

수목의사회의 목적은 노거수를 비롯하여 수목전반의 수세회복 및 보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고향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회원의 상호교류와 수목의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탄생하는 약 80명의 수목의사 거의 전원이 수목의사회에 가입해서 2001년 현재 771명이다. 총회는 년 1회하고, 이사회, 운영이사회, 부회 등을 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는 10지부를 설치해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목의사회의 일상적인 활동은 사무국과 기획부회, 기술부회, 공보부회, 상업부회 등 4부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부는 의사회의 장기적인 활동을 계획입안, 기술부회는 조사·진단기술에 관한 활동, 공보부회에서는 수목의사회의 뉴스·회보 및 각종 출판물 등의 편집·발행·정보수집과 인터넷에 의한 정보활동, 사업부회는 각종강연회 및 교육실시와 상징물의 제작 등을 하고 있다. 그 외 개별과제에 대하여는 프로젝트팀이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사무국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회원의 프론티아적인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목의사회는 수병, 토양, 곤충, 과수, 수목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진단, 치료가 가능하며 귀중한 수목을 건전하게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진단, 치료 및 수목보존기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수목의학회와 적극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1995년 9월에 발족한 수목의학연구회는 1999년에 수목의학회로 개칭해서 정식

적인 학술단체로 일본학술회의에 등록승인을 받았다. 500명 이상인 학회원의 과반수는 수목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목보호 기술의 학문적인 연구는 학회에서, 현장에서 진단, 치료 등의 기술은 수목의사회에서라는 목표아래 학회와 의사회가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 수목보존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 2. 주요활동 상황

### 가. 보급개발활동

회보(Treedoctor)를 년 1회 발간하는데 내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논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목의사들이 수목을 진단하고 치료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매호마다 특정한 테마를 설정하여 특집을 내는데 1993년에는 창간 기념호, 1994년에는 해외의 수목의사, 1997년에는 소나무를 지키자, 1999년에는 수목의사와 가로수 등으로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특집으로 편집한다. 1999년부터는 전국의 신문잡지에 게재된 수목의사의 활동과 수목보호 관련 기사를 수집해서 수목의사회의 PR에 활용하고 있다. 1999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2년간 수집한 건수는 785건으로서 1일 1건 정도로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기사 내용은 활약하는 수목의사(1999년판), 수목진단 치료사례집(2001년판) 등을 발간 활용하고 있다. 그 외 미국 사이고박사의 Mordern Arboriculture(번역판), 수목의사의 하는 일 등을 발간하였다. 수목보존의 지식보급과 수목의술의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일본녹화센타와 공동으로 수목의술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에코그린테크, 녹음의 감사제, 삼림으로 갑시다! 등의 축제행사도 실행하고 있다.

### 나. 조사진단 활동

1996년부터 (재) 일본녹화센타로 부터 수탁 받아 전국 각지의 수목의사들이 진단·치료 한 노거수, 고목 등 1,000건을 3년간에 걸쳐 추적 조사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카가미 대지진 피해목 조사, 수목의 위험도 진단, 축산 지역 녹화 지도사업 등을 (재) 일본녹화센타로 부터 수탁 받아 실행하고 있다.

## 다. 국제교류 지원활동

구미의 수목의술을 도입하고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1995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 아보리스트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일본의 수목의사회 활동을 발표한 바 있고, 회원들의 선진기술연수와 교류를 목적으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수목의술 선진국에 매년 파견되고 있으며, 구미의 전문가에 의한 강연회 강습회도 개최하고 있다. 1999년에는 타이 국왕 왕실임야국의 초청을 받아 일본의사회가 진단, 치료단을 파견해서 세계 최대의 티크수 보존을 위한 시술을 3년간 실시하여 수세를 회복시키기도 해서 타이국 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

## 3. 회원가입안내

### 가. 회원의 종류

- 정 회원 : 수목의사
- 찬조회원 : 법인 또는 개인

### 나. 회 비

- 정 회원 : 12,000¥
- 찬조회원 : 개인 - 12,000¥  
법인 - 50,000¥

### 다. 회원의 특전

수목의사회에서 발간하는 수목의사회 뉴스, 회보(Treedoctor), 기술도서, 각종 팜플렛 등을 배포하고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강습회에 참가할 수 있다.